

## J프로젝트 쪼개고 줄여라

### 사업규모 커 대기업 참여 꺼려...10년째 표류 정부 기업도시 규제 완화...사업 재조정 기로

전남도의 핵심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개발사업(이하 J프로젝트) 조성 사업이 법정타공과 땅값 지급 문제 등으로 10여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최근 국토해양부가 개발구역 면적 기준을 완화해주고 투자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J프로젝트도 전면적인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침체로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는 형편에 사업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현실에 맞게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4810만㎡(1455만평)에 조성되는 J프로젝트 사업이 시행사와 정부 부처 간 재관, 땅값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프로젝트 구상 및 검토작업이 시작돼 2004년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였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대형 국책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도시를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주택 등 생활편의 시설 등을 건립하는 맞춤형 도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충주, 원주, 태안 등 전국 6개 지역에 기업도시를 계획했고, 전남은 무안기업도시와 J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무안기업도시는 무산됐고, 전남도가 집중 육성했던 J프로젝트도 답보상태에 빠졌다. 6개 지구로 나눠 추진됐던 J프로젝트는 초송·송촌지구가 이미 백지화된데 이어, 삼호·구성·삼포·부동지구 등 남은 4개 지구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면적을 개발할만한 대기업 참여가 없는 탓이다. 최근 첫 삽을 뜬 충주기업도시가 롯데, 포스코 등 13개의 대기업 참여 속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면적 기준 500만㎡) ▲지식기반형(330만㎡) ▲관광레저형(660만㎡)으로 구분되는데 J프로젝트는 개발 면적 기준이 가장 넓은 관광레저형으로

확대 도시조성비만 2조3900억원에 달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간척지들 사들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땅값 문제도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다. 아직도 삼호지구의 경우 땅값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구성지구는 사업 시행사가 부지 매입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도시의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무주는 사실상 무산됐고, 충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도 사업 진행이 더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에서 벌어들이는 초과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비율을 현재 30~50%에서 평균 12.5% 낮추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 최소면적이 330만㎡ 이상이지만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개발 기준면적을 최대 절반으로 축소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참여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부담이 다소 줄어 J프로젝트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땅이 넓다 보니 이를 개발해야 할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고,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개발수요가 분산돼 더욱 투자기업을 찾기 힘들어 진 것"이라며 "차라리 개발 면적과 계획을 줄이더라도 현실에 맞게 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김은영의 '그림 생각' 매주 목요일 찾아갑니다 ▶3면**  
광주일보가 가을을 맞아 매주 목요일 미술칼럼 '김은영의 그림생각'을 연재합니다. '김은영의 그림생각'은 세계 미술사를 빛낸 명작(名作)과 그 속에 담긴 예술정신을 독자 여러분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시대를 감동시킨 명화 이야기와 함께 일상의 여유를 찾기 바랍니다.



## 군살 뺀 F1 힘찬 시동

### 개막 한달 앞두고 광주·서울 등 로드쇼

'총알 탄 사나이들의 질주' F1(10월 12일~14일) 코리아그랑프리 개막을 한 달 앞두고 13일 오후 2시 광주 시 서구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 'F1 머신 순회 게릴라 로드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막 준비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TV 중계권료와 원천세를 내지 않는 등 비용 230억원 가량을 줄이는 등 '군살'을 빼 적자에서 벗어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F1조직위는 "개막 D-30일(오는 14일)에 맞춰 광주를 시작으로 전남, 서울 등지에서 F1 쇼카(Show Car)를 선보이는 게릴라 로드쇼를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첫 열리는 게릴라 로드쇼에서는 슈퍼카 4대와 대형 오토바이 4대가 퍼레이드를 펼친 뒤 영암을 거쳐 목포로 이동한다. 또 이날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공연이 결집된 F1 이벤트 행사가 열리며, 14일에는 강진, 장흥, 보성, 광안, 여수, 순천 등지에서 게릴라 로드쇼를 갖고, F1 개막전까지 서울 등 전국을 순회한다.

개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대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울

■ F1 코리아그랑프리 일정

<b>10월12일</b> (오전 10시~11시30분) (오후 2시~3시30분)	연습주행1 연습주행2
<b>10월13일</b>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2시~3시)	연습주행3 예선
<b>10월14일</b> (오후 1시45분) (오후 3시~5시)	개막식 결승전

해 F1 경주는 매 대회마다 우승자가 바뀌면서 시즌 우승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이번 한국 대회에서 시즌 우승자의 영광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싸이가 결승전이 펼쳐지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영암 F1경주장 상설블록 콘서트장에서 '싸이 F1 특별콘서트'도 여는 등 문화 행사도 풍부하게 마련됐다.

하지만 11일 현재 메인스폰서와 주관방송사를 잡지 못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올해는 올림픽과 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가 겹쳐 입장권 판매 등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기아차도 밤샘근무 없앤다

### 주간연속 2교대 등 합의...14일 노조 투표

기아자동차 노사가 12일 밤샘협상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임금 5.3% 인상, '성과·격려금 500%+960만원' 등이다. 이로써 기아차 광주공장도 40여년 만에 '밤샘 근무'가 사라진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서 열린 제16차 본교섭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의 주요 내용은 ▲내년 3월4일부터 전 공장에서 본격 시행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당 생산대수(UPH) 향상 등 생산성 제고로 총 생산량 보전 ▲종업원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등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행 주·야 각 조 10시간씩 일하는 주야 2교대에서

1조 8시간(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9시간(오후 3시40분~새벽 1시3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작업하는 근무 형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도 현행 '10시간+10시간' 기준 2137시간에서 '8시간+9시간' 기준 1887시간으로 250시간(11.7%) 줄어들게 된다. 그 대신 시간당 생산대수를 308.3대에서 338.3대로 높이기로 했다.

임금 합의안은 ▲기본급 9만8800원 인상(기본급 5.3%, 호봉승급률 포함) ▲성과급 350%+600만원 ▲생산·판매량 등 특별 격려금 150%+360만원(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이다. 기아차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14일 오전 6시~11시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끄짱마"**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은 12일 신안군 불무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단속 합동훈련을 펼쳤다. 서해해경청은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신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www.hpdynastycc.co.kr

##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홀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홀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 홀에 겁니다.
-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 하게 됩니다.
  - 10%는 차기 홀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 소득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시코스 20번홀입니다.

**진초록 양진디 카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7700-7777